

라온아띠 12기 인도 뭄바이팀 산띠 월간 보고

**NAMASTE, SHANTI : SEPT.**  
안녕, 평화 : 구월호.

## 9월 일정표

1	2	3	4	5	6	7
	출국캠프	출국캠프	비행	브랜치 방문	뭄바이 둘러 보기	
8	9	10	11	12	13	14
브랜치 방문 가네쉬 축제	브랜치 방문	브랜치 방문	스텝 미팅 NSC	힌디 수업 발와디 NSC	DCC	오남 (student branch)
15	16	17	18	19	20	21
힌디 수업 발와디 NSC	힌디 수업 스승의 날	힌디 수업 발와디 NSC	힌디 수업 문화 체험 (Mt, marry church)	힌디 수업 발와디 NSC	DCC	오남 (proctor branch)
22	23	24	25	26	27	28
힌디 수업 발와디 DCC	힌디 수업 수영 교실 DCC	힌디 수업 발와디 DCC Y-산띠 미팅	힌디 수업 수영 교실	힌디 수업 발와디 DCC	DCC	
29	30					
힌디 수업 발와디 DCC	힌디 수업 수영 교실 DCC					

\*NSC : NIGHT STUDY CENTER (야간자율학습센터)

\*DCC : 까마티푸라의 DAY CARE CENTER (아동보호센터)

# 0\_산띠 소개

뭄바이의 청년 친구들을 만나 자기 소개를 한 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이 곳에서 살아가면서 불리게 될 힌디 이름, 또 다른 삶의 시작!

## 로산/ROSHAN



?



## 빛 (LIGTH)

## 쿠시/KHUSH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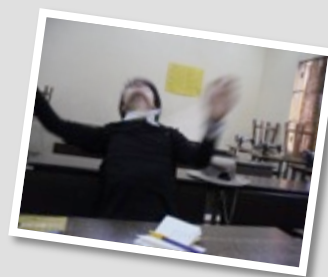


## 행복 (HAPPINESS)

## 찬드/C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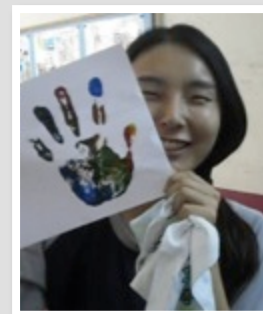


?



## 달 (MOON)

## 지야/J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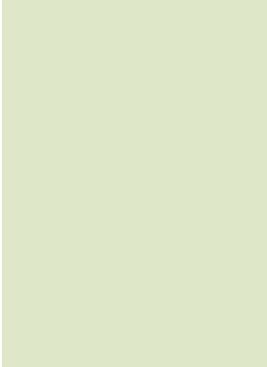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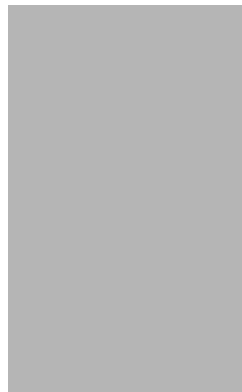
## 살아있음 (ALIVE)

# 1\_봄베이 Y와의 만남



도착 직후, 총 스탭미팅 참여와 9개의 브랜치 방문과 캠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간사와의 만남, 주후스트리트CHILDREN센터 (JUHU street children center)와 카마티푸라 (Kamathipura)의 Day care center를 견학하고 책임 간사와의 대화를 통해 봄베이 Y가 추구하는 가치, 하고 있는 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봄베이 Y의 각 브랜치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핵심사업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체육프로그램과 청년, 여성,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 지역아동센터(Day care center) 운영, 야간자율학습학교(Night Study Center),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직업교육,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공동저축과 대출 지원(Self Help Group) 등이 그것이다. **유료 체육프로그램과 로터리클럽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청년, 여성, 아동을 위한 무료나 낮은 금액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봄베이 Y의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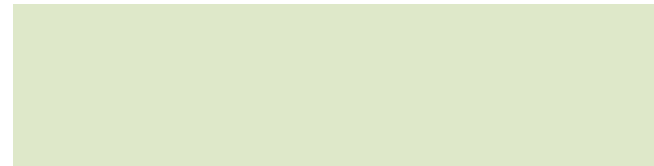
봄베이 Y의 많은 간사들은 라온아띠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언제나 우리의 질문과 제안에 마음을 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주어진 것을 그대로하기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전하라는 응원의 말들 속에서 우리는 차근차근 이곳에 적응해나가고 있다. 항상 그 응원과 지지에, 뭍바이에서 '라온아띠'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모두 함께 다짐하는 한달이었다.

## 2\_힌디 수업

출국하기 전부터 미리 힌디어 책을 사서 준비를 할 정도로, 힌디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출국하기 2주일 전쯤에 만난 전 기수인 인도 아띠들은, 인도 친구들과 빨리 친해지기를 원한다면 힌디어를 빨리 익히면 좋다는 말과 함께 동사를 이용한 회화 위주의 말을 배우기를 추천해 주었다. 그리고 봄베이 Y에도 회화 위주의 수업을 조금 더 알려주기를 요청하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첫 날 힌디어 수업을 하는 날부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드디어 힌디어를 배울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전 기수의 피드백 덕분인지 힌디어 수업은 회화 위주의 내용이라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많은 힌디어 단어를 익히고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은 조금씩 단어와 명사를 이용해 힌디어 문장을 만들어서 **인도 친구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배워 나가는 힌디어는 인도 현지 사람들과 우리가 활동하는 장소의 아이들과 의사 소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의 힌디어 선생님인 **사바(Miss Saba)**는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선생님이고, 사바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학생들이라는 말을 한다. 가끔은 사바가 보기에 못 따라온다고 오해를 사는 아띠들은, 사바의 주특기 중에 하나인 분필 세례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한번이지만 힌디어 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했을 때, 다 같이 벌칙 댄스를 추는 등 힌디어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인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배우고 있다.

아 참고로, 이번 달 말 사바가 약혼을 했다. 사바가 지금도 본인에게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한 이전 기수 남자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 드린다!



## 3\_장애 아동 수영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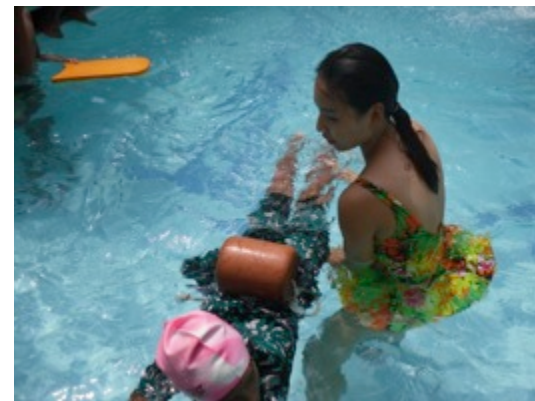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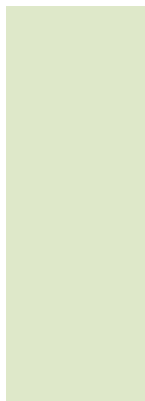
산띠는 수영 교실에 총 3번 참가하였다. 수영 교실은 봄베이 YMCA 프록터 브랜치에서 이루어지며 화요일은 신체 장애 아동을 위한 수영 교실이 열리고, 목요일은 농아 아동을 위한 수영 교실이 열린다.

신체 장애 아동들의 수영을 가르칠 때는 그들의 어떤 부분이 불편한 지 잘 몰라서 어떤 것을 움직여라고 하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었고, 농아 아동들의 수영을 가르칠 때는 그들이 비언어적인 소통으로만 우리와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어려움들은 수영 클래스의 아동들과 소통하는데 그리 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말을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취했던 수많은 표정과 동작들이**, 함께 수영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더 많은 신체 접촉들이 우리

를 행복하게 하고, 친구들과 교감하고 있다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물 속이라는 공간은 특히 신체 장애 아이들의 불편함을 철저히 가려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 사실 신체 장애 아동들은 겉모습은 다른 사람과 달라 거의 모든 공간에서 시각적인 차이를 느끼게 하는데 물 속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점이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인도는 힌두교 사상이 전범위에 걸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사실 자식의 장애가 전생에서 부모가 저지른 죄에 의한 결과로 여겨지는 게 전통 사상이다. **잘못된 사상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만, 봄베이 YMCA에서 이러한 수영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즐거운 교육,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실은 감동적이다. 수영 교실에 참가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기회였다.



## 4\_BALWADI(유치원)



한국의 어린이집과 비슷한 발와디(Balwadi)는 우리에게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언어적 소통이 아닌 **비언어적 소통**에 대해 고민하도록 했다. 우리는 아이들과 교감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경계해야 할 사람이 아닌 친구로 다가가기 위해 각각 다양한 비언어적 소통을 시도하였다. 밝은 표정과 과장된 몸짓, 그리고 크고 재미있는 의성어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덕분에 언어가 아닌 여러 가지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외국인으로서 5개월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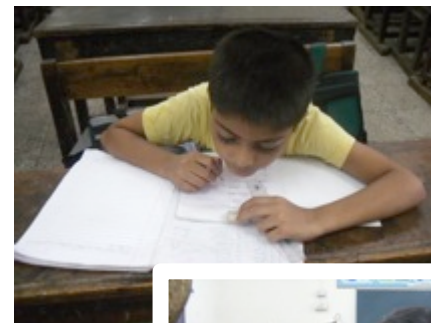
우리가 발와디에 처음 방문했을 때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많이 어리다는 것을 고려해 규칙이 없고 단순하면서 재미있는 놀이를 해야 했고 우리가 준비한 놀이는 아이들의 여러 감각을 자극하는 '신문지 찢어 던지기', '손바닥, 발바닥 본떠 그리기', 물감을 이용한 '손바닥 찍기'를 준비했고 높은 참여도와 흥미를 일으키며 잘 마무리하였다.

## 5\_NIGHT STUDY CENTER(야간자율학습센터)

Night Study Center(이하 NSC)는 공부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뭍베이 Y에서 YMCA의 공간이나 공립학교의 교실을 빌려 무료로 야간자율학습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뭍베이의 인구 20%가 집이없고, 40%는 작은 단칸방에서 6명 정도의 가족이 살고 있다. 뭍베이의 길을 걸을 때마다 높은 빌딩 아래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싱글침대 만한 크기의 이층집들이 인도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빈부의 격차를 실감한다. 물리적 공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알콜중독 등의 가정문제로 집에서 공부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NSC를 필요로 하고 찾고 있다.

우리는 2곳의 NSC에 공부를 도와줄 목적으로 파견되었으나, 언어의 차이와 영어실력의 부족으로 공부를 도와주는데에는 어려움이 컸다. 오히려 이방인에 대한 관심으로 시끄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하고 있는 몇몇 학생들에게 미안해져 더이상 NSC를 지속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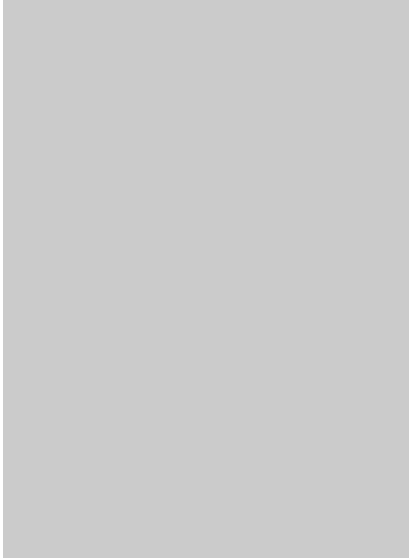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의 방문이 공부할 없는 공간이 없는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한다는 NSC의 목적을 해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뭍베이 Y와의 상의 끝에 NSC에 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관심이 많은 카마티푸라의 데이 케어 센터(다음 장 참고)에 가기로 했지만, 몇가지 아쉬움을 남는다. **활동 중단을 논의하면서 알게 된 뭍베이 YMCA의 NSC 파견 목적은 학습 뿐만 아니라 인도 청소년들의 국제교류기회 마련에 있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목적에 동의한다.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이 되기를 자처한 라온아띠이기에 모든 아시아의, 세계의 청년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 우리 역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제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인도를 알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NSC에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고,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으며,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다만 우리는 **NSC의 본래 목적**을 해하면서까지 국제교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NSC의 목적도 지키고, 아시아 청년들의 교류라는 목적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NSC와 별개로 아띠클라스를 기획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의 적응 기간 이후 새로운 사이트로 떠나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띠클라스를 여는 것은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 많은 질문과 이야기를 건네주었던 이 지역의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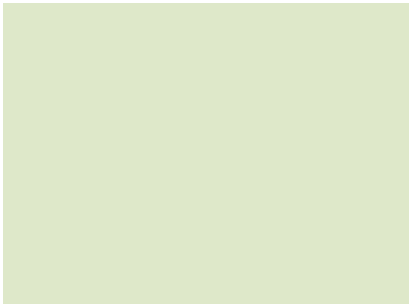
## 6\_까마티푸라 DAY CARE CENTER(지역아동센터)



지난 라온아띠 인도 뭉바이 팀들의 활동들을 봤을 때 까마티푸라(Kamathipura)의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DCC) 이야기는 절대 빠질 수가 없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었다.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DCC를(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 한국의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하다.)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에서 창문을 통해 각종 쓰레기 눈이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장기성 프로젝트가 가능한 라온아띠의 장점을 생각해 우리 산띠도 지난 기수들의 활동을 이어 DCC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가려고 준비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코디네이터와 대화를 통해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 기준만 생각하고 더 넓은 지역사회가 아닌 DCC 주변 환경 개선이라는 것에만 집착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될 라온아띠 팀들이 이곳 DCC에서 변화를 위한 작은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우리가 낯선 사람들이 아닌 자주 접해 친밀감 형성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산띠의 담당 호스트들에게 앞으로 지역을 옮긴 후에도 멀지만 일주일에 한번 DCC에 방문하기로 했다. 또한 DCC의 **인도 대학생 자원활동가 친구들과 협력해** DCC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결과는 흔쾌히 응해주었다.

## 6\_까마티푸라 DAY CARE CENTER(지역아동센터)

우리는 성급하게 어떤 활동을 벌이기보다는 이곳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스며들면서 천천히 필요한 활동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Day care center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위생 문제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 되었다. 아이들은 DCC 건물 안에서 신발을 벗고 바닥에 뒹굴며 놀고, 잠을 자며, 공부도 한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의 경우 Day care center에 들어올 때는 밖에서 신는 신발을 그대로 신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는 인도 문화와도 거리가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내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발장을 재배치하고 신발을 벗는 경계선부터 만들기 하였다. 밖에서 신는 신발을 안에서 그대로 신는 작은 행동이라도 바꾸어 실내를 깨끗하게 하자는 시도였다. 그래서 “신발은 신발장에”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 캠페인은 구성원으로 스며들고자 산띠가 DDC를 둘러싼 아파트 커뮤니티에 전하는 작은 첫 인사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은 봄베이 Y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준비 중에 있다.



## 7\_산띠생각 : 자원활동가로서의 태도

산띠의 9월의 350PPM과 자발적 불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YMCA 호텔 (International house)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편의(세탁 서비스, 청소 서비스, 룸 서비스 등)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묶어 ‘자원활동가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로산,**

“나는 자원활동가로서의 **가장 낮은 자세**를 지향 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수양** 차원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이 곳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쿠시,**

“해보지 않았던 시도들도 나 역시 지향하고 있지만 350PPM이 부담이나 의무가 아닌 **일상의 행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무엇보다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실천의 중요한 점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는 **차선이라도 팀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해.”

350PPM 추가 사항은 **‘물 받아 아껴 쓰기’** 이다.

‘물만 받아 쓰자, 물을 받아 쓰는 양까지 제한을 두자, 물을 받아쓰는 양을 제한하기보다는 샤워하는 시간을 제한하자.’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물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계속해서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물부터 받아쓰기로 했다. 한 달동안 모두가 양동이에 물을 잘 받아썼다.

지속 가능한 지구  
를 위한 실천

350PPM

# 7\_산띠생각 : 자원활동가로서의 태도

지야,

“서비스에 친절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는 서비스를 산 것이지 그 사람의 감정을 산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이 청소, 빨래, 서빙 이외에 나에게 보여주는 미소는 내가 지불해서 얻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야. 우리는 항상 그 미소에 감사해야 해. 또한 일 속에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의 친절 역시 좋은 힘이 될 거야.”

찬드,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도 지속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 뭍바이에서의 삶이 서울에서의 삶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 될 것이라면 이 곳에서의 서비스를 그렇게까지 거부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우리는 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에 해를 끼치거나 그 분들의 노동을 빼앗지는 않아야 하지만 자원활동가로서 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 공간을 위해 수고하실 필요가 없게끔 우리 스스로 깔끔한 상황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서비스는 그대로 흘러가게 하되 우리의 그 분들의 노동에 언제나 감사하며, 우리에게 노동을 주시는 그 분들을 미소와 친절로 대하기로 하였다.

모든 노동에 대한 감사



서비스에  
대한 태도

# 8\_인도 체험

## 뭄바이 둘러 보기 SITE-SEEING

### 자한기르 미술관 (Jahangir art gallery)

인도의 이름 있는 화가들이 여는 전시회였다.  
각 구역별로 나뉘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세 명의 화가들을 만났다.

### 인도의 문 (Gateway of India)

영국이 식민시대 건축물 중 가장 핵심적인 건물.  
“인도의 문” 이라는 말처럼 커다란 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 하지알리 모스크 (Haji Ali's Mosque)

Haji Ali에 있는 MOSQUE는 무슬림의 기도신전이다.  
남자, 여자의 출입구가 다르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남녀가 따로 하는 장소가 있다.



### 초파티 해변 (Chopati)

뭄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바다.  
우리는 이곳에서 골라(Gola) 라고 불리는 얼음 빙수를 먹었다.

### 해변가 드라이브 (Marine Drive)

좋은 초파티 해변을 따라 난 차도.

### 행킹 정원 (Hanging Garden)

낙타, 기린 등의 형상을 풀로 만든 조형물이 있는 정원.

초파티 해변을 따라 밤에 가로등이 켜지면,  
여왕의 목걸이라고 불리는 장관이 연출된다.

해질녘 보이는 전망대에서 초파티를 내려다 보며 휴식을 취했다.

# 가네시 짜르투티 GANESH CHATYRUTHI

가네시 짜르투티는 힌두의 신 가네시의 탄신을 축하하는 축제로, 다수의 아주 큰 트럭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 하루 동안은 도로를 장악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닌다. 큰 트럭에는 보통 코끼리 얼굴에 사람 몸을 한 이름이 가네시 신의 동상이 실려 있고, 이 트럭의 뒤를 따라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 이 행렬은 끝이 안 보이게 길게 늘어서 있는데, 마치 뭍바이에 사는 모든 힌두교 사람들이 하는 퍼레이드처럼 보인다. 축제의 행렬의 도착지인 마지막 장소인 초파티(Chopati) 해변에서는 가네시를 기리고 숭배하는 의식을 행한다.

우리는 이 종교 축제를 통해 타 종교에 대한 “존중”을 배웠다. 이 축제를 즐기지 않는 타 종교, 인도의 사람들도 이 축제를 하나의 큰 행사로 생각하고, 그 축제가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종교의 문화와 사교를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인도를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8\_인도 체험

### 오남 ONAM



오남(Onam)의 기원은, 깨릴라 지역의 보트 경주에서 유래되었고, 경주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한다.

우리는 봄베이 Y의 좋은 친구(라온아띠)로 초대를 받았다. 축제에 참석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준비한 음악, 춤, 그리고 공연을 선보였고, 우리들도 민요 “닐리리아”와 “까탈레나”댄스를 준비하였다. 댄스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민요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우리는 오남 축제를 전통을 기린다는 차원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것을 보여주자는 마음에 민요를 선택했는데, 축제의 분위기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도 축제의 분위기를 조금 망친 것 같은 생각에 브랜치 책임자 오스틴에게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 경험은 인도와 한국이 전통 축제를 즐기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축제가 끝나고 우리는 오남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전통 음식을 먹었다. 큰 바나나 잎 위에 반찬, 밥을 얹어 놓고 이 모든 걸 적절히 섞어서 오른손으로 먹어야 한다. 우리도 어설프지만 거의 처음으로 손을 사용해서 먹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게 다들 손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잘 먹었다. 특히 로산은 현지 사람들 못지 않게 잘 먹어서,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나야 할 곳이 인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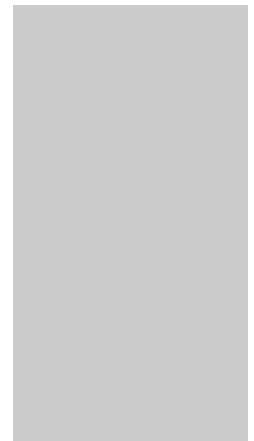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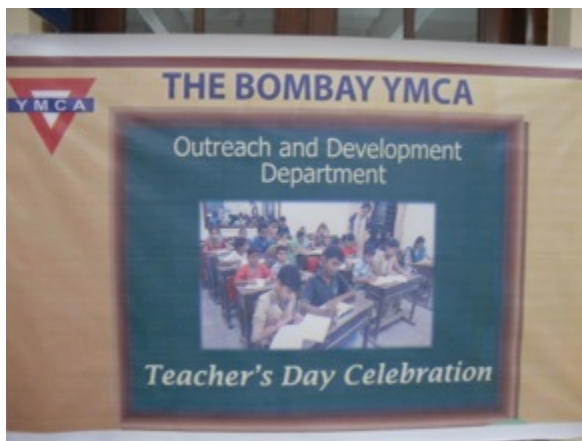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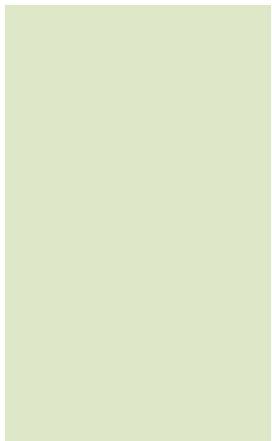
## 8\_인도 체험

# 스승의 날 TEACHER'S DAY

우리는 프록터(Procter) 브랜치에서 열린 인도의 스승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하였다. 스승의 날의 기원은 인도의 선생님이 자 의사였던 **살베팔리(Dr. Sarvepalli)**의 생일이다. 스승의 날은 학교, 사설기관, 봄베이 Y에 소속 등 각 재단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가벼운 단체 게임을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표자가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단합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힌디어로 발표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인도의 선생님들이 그들의 직업에 정말 열의와 성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곳의 분위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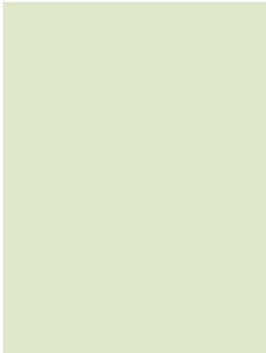
이 행사에서 우리들은 오남에서 보여줬던 “까탈레나” 춤만을 선보였고, 공연이 끝난 다음 우리의 공연을 본 선생님과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잘했다면서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구미 지역 훈련 때부터 단순한 율동에서도 박자도 안 맞고 동작도 따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자기는 몸치라고 생각해 자학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최고였다는 말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며 아낌없이 많은 칭찬을 해준 인도의 현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 8\_인도 체험

### 마운틴 메리 교회 MT. MARY CHURCH



반드라(Bandra) 지역에 있는 마운틴 메리 교회에 방문을 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는 날짜가 기도를 하는 특별한 주라는 말을 봄베이 Y에 일하는 친구한테 들었다. 우리 팀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로산 밖에 없지만, 인도에 있는 크리스천 문화를 이해하는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 같이 가기로 하였다.

마운틴 메리 교회의 산 입구에 도착을 하였는데, 입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도 사람들 옆으로 같이 걸어 올라가는데 길옆의 상점에서 팔고 있는 기도용 양초의 디자인이 흥미로웠다. 팔, 다리, 집, 연인 등 다양한 형태를 한 양초가 준비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의 양초**를 파는 이유는, 본인의 기도목적에 맞는 양초를 구매하고, 기도를 드리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팀은 각자가 자기의 기도에 맞는 양초를 구매하고, 약간은 정숙한 마음으로 마운틴 메리 교회를 향해 걸었다. 교회 내부는 장소가 협소하고, 이곳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린 탓에 충분히 발 디딜 공간 없이 밀착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 어느 정도 길을 따라서 본당 중간쯤에 도착한 우리들은 자리를 잡고 각자가 생각하고, 준비한 기도를 짧게나마 올리고 밖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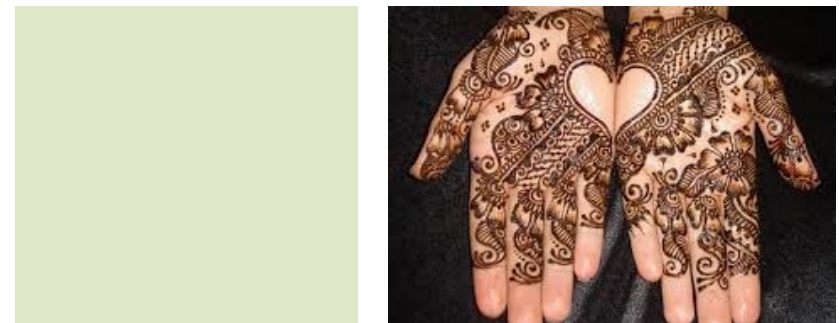
# 8\_인도 체험

## 멘디 MHENDI

멘디는 인도의 여성들이 꽃이나 공작새 등을 본 따 이상학적 문양을 손과 발에 천연염색물감인 헤나로 그리는 것이다. 여성들은 결혼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멘디를 그려 몸을 치장한다. YMCA에서는 직업교육으로 멘디 수업을 열고 있어서, 쿠시와 지야는 1주일 동안 멘디 수업에 참여했다. 로샨과 찬드도 배우고 싶었지만 인도에서 멘디는 여성의 문화이고, 남성은 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수업을 통해서 인도의 문화 중 하나인 멘디를 배운다는 사실도 기뻐지만,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서로가 그린 멘디를 칭찬해주고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기뻐했다. 손에 연습한 멘디를 보고 예쁘다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멘디 수업이야기를 하며 현지인들과 더 쉽게 친해질 수 있기도 했다.

언어가 달라 소통하기 힘들어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가르쳐주신, **삼남 선생님께 (MISS. SABNAM)**께 감사 드린다.



## 구월의\_로산(ROSHAN)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난다.”

세상에 꼭 필요한 귀한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빛이라고 한다. 이 귀하게 여기는 빛도 어디에 놓아두는지에 따라,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더 많이 쓰이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 내 이름에 가운데 한자는 “빛날 휘”, 인도 친구가 지어준 내 이름인 “Roshan”의 의미는 “Light”, 둘다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내 안에만 비추던 빛을 이제는 밖으로 비춰, 주위를 밝히는 빛이 되고자 한다.

처음으로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내가 자주 보는 사람들 이외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처음 가보는 장소들 등 지금도 내 주변에서 보여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직도 처음처럼 느껴 지는데 벌써 인도에 온지 한 달이 지나간다.

시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번 한 달은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 보다는 인도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의 삶과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가, 이곳의 친구로서 자연스럽게 지내는 연습을 했다. 먼저 다가갈 때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조금씩 배우고 있는 어설픈 힌디어로 안부를 묻고, 횡설수설하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몇 마디라도 더 대화를 많이 주고받는 게 조금은 더 빨리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종종 강의실의 문과 문 사이의 거리만큼 멀찍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거리감을 느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실수를 하였는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내가 생각한 방식을 놓지 못하고 이 친구들에게 더 열심히 다가갔다. 하지만 이렇

게 할수록 점점 쓸쓸해지는 느낌이 커져 가고 있었다. 내가 느끼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두 명의 인도 친구가 나에게 보여준 행동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D.C.C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인 샤달람이라는 어린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늘 먼저 다가와서 같이 놀자고 조르고, 웃으면서 팔과 다리에 매달리는 활발한 친구다. 한번은 내 무릎 위에 앉아서 같이 놀자고 조르는 샤달람에게 힌디어로 Hug(gale ragaa: 갈레 라가오) 라는 말을 했다. 그러자 샤달람은 내 얼굴을 잠깐 한 번 보고는, 눈이 안 떠지게 웃으면서 Boiya(보이야 : 형)라는 말과 함께 내 품속에 파고들어 안기었다. 그 날 배운 힌디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친구의 체온을 느끼고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뜻하지 않는 기대 이상의 행복감을 느꼈다. 샤달람도 이 날 나와 같은 기분을 느꼈는지 그 다음부터 날 볼 때마다 더 활발하게 나에게 매달리고 안기기를 반복하고 있다.

## 구월의\_로산(ROSHAN)

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Raphael 이라는 친구가 있다. 필요한 부탁이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이 친구가 항상 곁을 지켜준다. 그 대신에 본인의 일에 지장과 휴식 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활동에 이 친구가 함께 동행 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한번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 디카가 화면이 제대로 안 잡히는 고장이 났었다. 이 때 제일 먼저 찾아가면 좋을 친구가 Raphael이지만, 며칠 전에 밀린 업무가 많다는 말을 듣고는 선뜻 가기가 주저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사무실 앞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감이 좋은 이 친구는 먼저 나를 알아보고는 웃음으로 반기며, 들어오라는 손짓과 함께 건강은 어떤지, 혹시라도 자기가 도움 일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물어 봐주었다. 나는 활동에 꼭 필요한 디카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리를 하고 싶다는 말과 너가 너무 바쁘는데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라는 말을 전했다. 그러자 이 친구는 나에게, “전혀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나는 너희를 도와 줄 수 있어서 기뻐. 왜냐면, 너희들은 나의 좋은 친구거든.” 라는 말과 함께 수리 센터를 알아봐주고 디카를 들고 직접 수리점에 맡겨 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새것처럼 작동이 잘 되는 디카를 받을 수 있었다.

두 친구에게서 공통으로 배운 것은 친구가 부탁하는 것이 크고 작든 간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응답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인도의 친구를 사귀려는 방법이 ‘나도 친구가 될 테니, 너도 내 친구가 되어줘.’라는 무언의 강요가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걸 깨닫고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친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먼저 대가나 어떠한 기대를 바라지 않게 되고, 모든 내용은 이해 못하지만 끊임없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한 사람씩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속도는 느리지만 천천히 다가가는 방법을 행했다. 그래서 지금은 나에게 같이 축제를 가자고, 주말에 자기 집에서 와인 한잔 하자고, 핸드폰번호/페이스북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친구를 하자는 초대와 권유가 따라왔다. 인도에 와서 친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이 친구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잠깐 밝힌 빛일 수 있지만, 그 빛을 이따금 다시 생각 했을 때 이 친구들의 기억에 은은한 빛으로 남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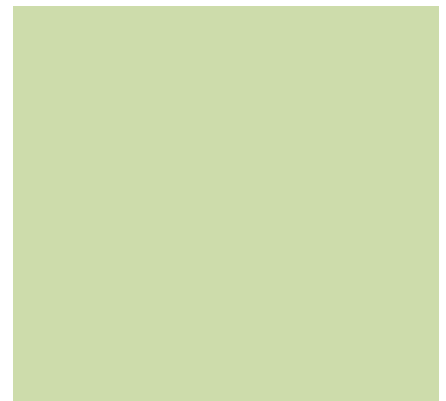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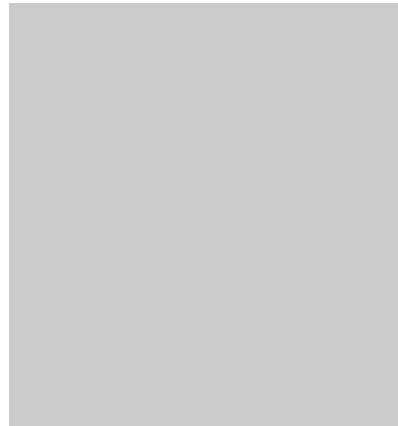
# 구월의\_찬드(CHAND)

꿈이란 누군가는 사람의 무의식이라고 하고, 누군가에겐 예지가 되기도 하며, 누군가에겐 흥미로운 경험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든 꿈은 잠들기 전 삶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이미지와 느낌으로 채워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얼마 전까지 라온아띠는 꿈과도 같았다. 의미는 끝난 후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라온아띠 이외의 그 전 한현욱의 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의 상황에서 이 정도 몰입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 일지도 모른다. 2014년 7월부터 10월을 마친 지금까지, 지난 삶을 흔드는 3개월을 보냈다. 그 어느 달도 적당한 흔들림은 없었다. 국제 자원 활동이 아닌 인간 개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방식 그리고 생각.

모든 것이 도전이었고, 그 도전은 많은 용기를 내야만 했다.

나에게 변화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함께 따라왔다. 라온아띠는 적어도 나에게 모든 것이 도전해야 할 것들이다. 이곳에서는 잘 해왔던 것들과 나의 특기까지도 의문과 함께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어떤 모양이든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

“너는 더 잘 해야 한다.” 누군가 나에게 던지시 건네준 말이다. 매 순간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지만 하나의 행동을 만든다. 나를 조금 더 움직이게 한다.



# 구월의\_찬드(CHAND)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금마저 버려야 한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까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한다.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중



# 구월의\_쿠시(KHUSHI)

오늘이 이 곳에서의 마지막 하루였다면 얼마나 아쉽고 후회가 많았을까. 오늘이 4개월의 시작지점에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체한 것이 나아지질 않아서 병원에 다녀왔다. 몸이 불편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곳에서 많이 먹고 있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 그런 것들을 내가 함부로 판단해버린 순간 나의 생활은 너무나도 간단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술한 고민들,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느낀 순간 그동안 내가 피하려던 것들의 정체를 알았다. 나는 위로를 받고 싶을 뿐 나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너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구나. 너는 너로서의 존재이기보다는 나에게, 나를 위한 어떤 존재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실망하고, 혼자 이후의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고,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나의 자아 대신 나의 위와 장이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었다.

나의 화는 왜 표출되어야만 할까.

나의 스트레스는 왜 주변 사람들의 관계로만 회복되어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는 없는 걸까.

다른 사람도 웃으면서 먼저 다가오는 일이 쉬워서 하는 일이 아님을 나는 기억해야 한다.



## 구월의\_쿠시(KHUSHI)



9월을 마무리 하는 소감을 적는 이 순간 이후에도 나는 수 많은 실수들과 아픔들을 미리 예약해두고 있다. 하지만 염두해야 할 것은 함께 하는 행복이고, 위로고, 장난이고, 따뜻한 손길이겠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겠지. 이런 성찰과 느낌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루를, 이틀을, 이 시간들을 보내고 싶다.

이 곳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과분해서 가끔은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이 곳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내게 위로와 웃음을 줬던 마음 따뜻한 친구들이기에.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내게 참 과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내게 가장 과분한 사람은 옆에 있는 3명이었을 수도 있겠다. 배가 아플 때 손을 따 주고, 핫팩을 가져다주고, 밥을 가져다줬던 세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지야 디디 말대로 빛 값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웃고 있지 않으면 화가 난 것 같은 쿠시...



## 구월의\_지야(JIYA)

거대하고 복잡한 대도시의 한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은, 결국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살아온 나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나는가 했더니, 나는 또 다른 도시, 서울보다도 더 잔인하게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와 있다.



여느 도시처럼 공간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뭄바이에서는 하루종일 빌딩이 하늘로 솟아 오른다. 공사 중인 아파트에도 그 아래층에는 빨래가 널려있고 불빛이 켜지며 사람이 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다. 불빛을 반짝이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릴 때 분주하게 길을 걷는 나의 어깨에는 다닥다닥 붙은 침대만 한 크기의 이층 집들이 부딪히고, 숨겨지지 않는 것인지 숨기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는 이 거대한 괴리 속에서, 나는 숨이 찬다.

나에겐 참담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빈부의 격차를 뒤로하고 이번 한 달만 해도 세 번의 큰 축제가 뭄바이를 신명나게 흔들고 지나갔다. 수많은 신이 있는 인도답게, 신을 위한 축제가 한 달에 두어 번씩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창밖으로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루를 열고 닫을 때마다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고, 끊임없는 축제 속에서 춤을 추며 함께 웃기를 멈추지 않는 그들을 내가 감히 거대한 격차 속에 갇혀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의 춤사

위와 미소는 서울에서의 나의 삶보다 풍요롭다.

도대체 인도인들은 행복한가, 불행한가. 인도는 나에게 모든 도시가 겪는 비극과 종교 속에 숨어있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교활함을 깊이 있게 이해할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복잡함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생의 원천을 깨달을 기회를 줄 것인가.

많은 인도인이 낯선 얼굴을 한 나에게 다가와 인도가 어떠냐고 내게 묻는다. 아마 다시 돌아가게 되면 서울의 친구들 역시 인도는 어떠냐고 물을 테다. 어떻게든 이곳을 이해해보려고 한 달이 넘게 발버둥치지만 나는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스물여덟 개 주의 문화와 정책들, 스물아홉 개의 언어, 십삼만의 신이 존재하는, 수 번의 침략의 역사를 지나 이곳에 남은 검은 옷차림의 무슬림 여성들과 영국을 닮은 빨간 버스들이 지나가는 이 거리를 걸은 지 한 달, 그러나 나는 감히 인도는, 뭄바이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없다.

## 구월의\_지야(JIYA)

앞으로 이곳에서 너 달을 더 보낸들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나의 말에, 라파엘이 나에게 말했다.

"다양성."

수많은 것이 얽혀 공존하는 곳에서 나는 어리석게도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굳이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아도, 28개의 주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방인 이곳의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꽤 많은 국경을 넘어보고도 여전히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나를 발견한다. 행복 혹은 불행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한국과 인도를 비교하며 인도를 한마디로 정의하고자 했던 나의 오만함을 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아직도 어색하다. 아무런 판단도 없이 이곳을 받아드리는 것이. 인도가 어떠한 질문에 대단한 설명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에서 벗어나도 좋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놓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혼란은 여전하더라도 나에게 작은 변화 역시 찾아오고 있다. 처음에는 귀가 얼얼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끊임없는 차들의 경적 소리를 어느새 따라 하며 노래처럼 흥얼거리고, 어느새 나의 땀 냄새에서는 인도의 향신료가 배어 나온다. 이

렇게 서서히, 나도 이곳에 젖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도시의 비극, 지배이데올로기의 교활함, 그런 모든 것을 이곳에서 끊임없이 직면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황량한 도시의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생의 원천이 목마른 나의 발밑에 달기를 바란다.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힘이 인도에게는 있다. 인도가 나에게 지야라는 이름, 살아있음이라는 뜻의 그 이름을 준 것도 아마 십삼만의 신이 만든 나의 운명일 것이다.



보이즈 홈을 처음 간 날,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아이들과 하늘... 할로!

# 부록\_산띠 사진전



# 부록\_산띠 사진전



지야 바지 찢어진 날



# 부록\_산띠 사진전



# 로산이 고름

이 남자의 피부관리법



어색함의 극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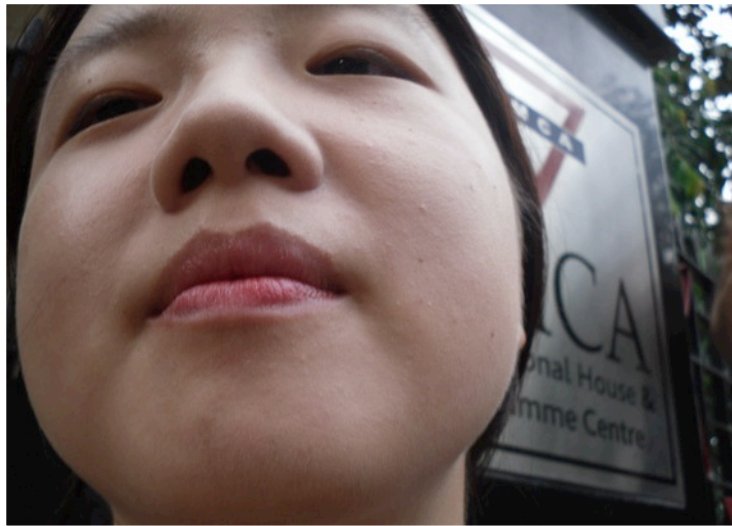
# 부록\_산띠 사진전쟁

사막여우  
달빛  
마이야



쿠시가 고름

지아가 고름



모찌♡



이거  
놔줘  
바이야

물건고름



THE END : OM SHANTI.

끝 :           평화를.